

생활 클럽 그룹 안내

2009.05.12

생활 클럽 연합회 개요

일본에는 약 600의 생협이 있으며, 조합원수는 2,200만명입니다(일본 인구는 1억 2천 7백만명). 생활 클럽 연합회는, 북으로는 홋카이도에서 남으로는 오사카후까지 19의 도도후현(都道府縣)에서 활동하고 있는 29생협의 사업 연합 조직으로, 조합원수는 약310,000명이며 그 대부분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송이나 우유 공장등 관련·관계 회사는 9개사.

생활 클럽 연합회는, 조합원이 구입하는 소비재 (식료, 일용잡화, 의료, 도서등)의 개발, 구입, 관리, 검사, 유통, 공제사업과 예약 공동 구입의 신청 정보 및 광고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전체의 협력하에 조합원과 직원에 의한 각종 위원회와 프로젝트 등을 설치하여, 유전자 조작, 환경 호르몬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 연합회의 회원 단협은,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약 200 개의 지부를 기반으로 성립되어 있으며 각각 자립적 운영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의 자금은, 매월 조합원 한 사람당 1000 엔의 출자금을 적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총액 276 억엔(2007년 3월말)으로, 한사람당 평균 출자액은 약 93,000 엔이며, 이러한 출자금은 건전 경영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설립 1990년 3월 12일

■ 명칭 생활 클럽 연합회 (생활 클럽 사업 연합 생활 협동 조합 연합회)

■ 소재지 6F 6-24-20 Shinjuku, Shinjuku-ku, Tokyo, 160-0022 Japan

Tel : 03-5285-1771

Fax : 03-5285-1837

E-mail : info@seikatsuclub.coop

URL : <http://www.seikatsuclub.coop/>

■ 대표자 회장 : 카토 코이치

전무이사 : 후쿠오카 요시유키

상무이사 : 아소 준지, 와타나베 타카유키

■ 직원수 연합회 106명 (회원 생협과 관련 회사를 포함 그룹 전체는 약 1,300명)

■ 회원 단협 (29 단협)

생활 클럽 생협(도쿄), 23 구미나미 생활 클럽 생협, 키타도쿄 생활 클럽 생협, 타마기타 생활 클럽 생협, 타마미나미 생활 클럽 생협, 생활 클럽 생협(카나가와), 요코하마미나미 생활 클럽 생협, 요코하마키타 생활 클럽 생협, 카와사키 생활 클럽 생협, 쇼남 생활 클럽 생협, 사가미 생활 클럽 생협, 복지클럽 생협, 생활 클럽 생협(사이타마), 생활 클럽 생협(치바), 생활 클럽 생협(나가노), 생활 클럽 생협(홋카이도), 생활 클럽 생협(이바라키), 생활 클럽 생협(아마나시),

생활 클럽 생협(이와테), 생활 클럽 생협(시즈오카), 생활 클럽 생협(아이치), 생활 클럽 생협(토치기), 생활 클럽 생협(아오모리), 생활 클럽 야마가타 생협, 생활 클럽 생협(군마), 생활 클럽 후쿠시마 생협, 생활 클럽 생협(오사카), 생활 클럽 생협 교토 엘코프 (교토), 생활 클럽 생협(나라)

회원단협조직/사업규모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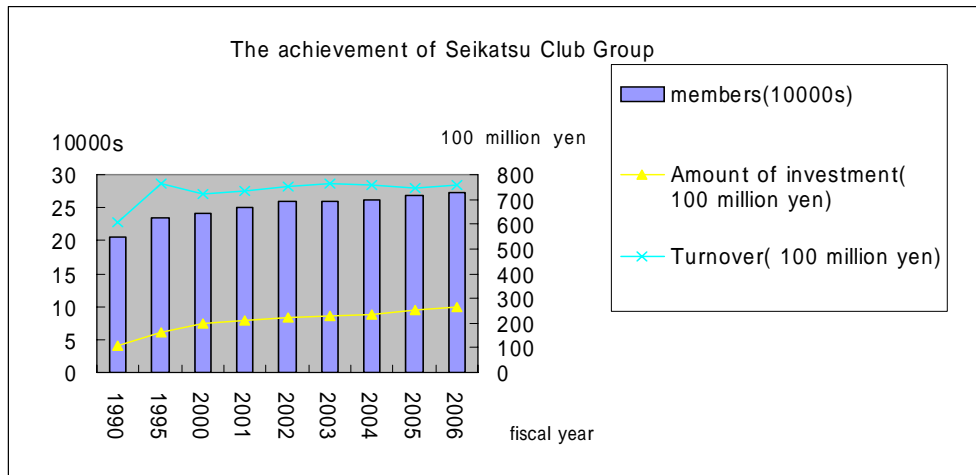
조합원수 : 308,982 명(2008 년 3 월말)

업종별 : 반<班>약 12 만명, 호별 배달 약 15 만명, 점포 약 4 만명

공급고 : 839 억엔(2008 년 3 월)

출자금 : 289 억엔(2008 년 3 월)

【생활클럽 공동 구입 사업의 추이】



또하나의 경제활동

1989 년 12 월 생활 클럽은 ‘제 2 의 노벨상’이라 하는 THE RIGHT LIVE LIHOOD(바른 생활상)의 명예상을 수상했습니다.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중시,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들어온 주부 운동이 효율 우선의 산업 사회에 대하여 ‘또 하나의 경제활동’으로 높이 평가된 것입니다.

제 2 차 세계대전후 일본 경제의 비약적 성장속에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기업 논리는 사회 풍조가 되었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자원 낭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생활 양식이 깊숙히 자리 잡아 왔습니다.

모양과 상품가치를 중시하여 농약이나 합성착색료 방부제 등을 첨가하는 식품에 의문을 느낀 생활 클럽은 시장에 나도는 상품만을 사는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벗어나, 인체에 안전하고 환경을 배려한 식품이나 생활 필수품 하나하나를 생산자와 협력하여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또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합성 세제나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조작 식품 불매운동, 용기/포장재의 환경 호르몬 대책과 리유스/리사이클 운동 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이란 사람들의 살림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활자’란 단지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닌,

일하고 배우고 유희하는 일상 생활속에서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생활의 바람직한 상태를 생각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생활 클럽은 생활자로서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영속성 있고 질 높은 생활 방법과 공정한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약 공동구입

생활 클럽의 예약 공동 구입은, 소재의 성분이 확인된 소비재를 불필요한 경비를 들이지 않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약 주문에 의해 조합원은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생산 출하가 가능하므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신선한 소비재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소수의 그룹으로 '반'(班 Han)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생산과 유통, 그에 따른 가격 인하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소비재는 산지에서 생활 클럽의 센터를 통해서 개인이나 반에 배달됩니다. 점포 유지비나 재고, 막대한 상품진열등에 따르는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개발과 공정한 가격

대형 슈퍼에는 30 만품목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생활 클럽의 일상적인 소비재는 약 3000 품목입니다. 그 중 약 60%를 쌀이나 우유, 달걀 냉동생선 야채등 기초 식품이 점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하나의 크기나 내용물은 1-2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원 낭비와 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품질 유지를 하는 한편, 한정된 소비재를 활용하여 폭 넓은 조리방법을 고안하는 조리 기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클럽은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맛있는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폐기까지의 과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그리고 환경을 배려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 있는 것이 생산자와의 합의 형성, 신뢰관계입니다. 쌍방이 품질이나 생산방법, 포장재, 보관 방법이나 유통수단 비용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주요품목의 가격은 생산에서 배달까지의 경비를 공개하고, 생산 원가에 따라 결정하는 생산자 원가 보증 방식 입니다. 이것으로 생산자의 생활과 재생산을 보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예약 공동 구입으로 경감되는 경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고, 언제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신뢰관계 유지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재 개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회적 세계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독자적이고 엄정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소비재

생활 클럽에서는 쌀, 육류, 달걀, 냉동생선, 야채, 과일, 된장, 간장, 소금, 기름, 향신료등의 식품을 비롯하여 의료, 잡화, 도서, 장난감, 여행/문화 티켓 등도 공동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 구입품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용가치를 중시한다는 관점에서 '상품'이라 하지 않고 '소비재'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재의 주된 특징

우유

72℃15 초간 살균한 저온 살균 제조법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판품에 많은 초고온살균(120~150℃)으로는 칼슘이나 단백질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유의 영양과 맛이 변합니다.

저온 살균 우유는, 살아있는 균이 적은, 양질 원유에서만 만들어 집니다. 따라서 제휴 생산자의 엄격한 위생 관리 기준으로 착유된 원유가, 더욱 엄격한 품질 기준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요구르트도 같은 원유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달걀

일본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달걀은 거의 수입된 닭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만, 생활 클럽 달걀은 기후현 고토부화장에서 태어난 국산 닭으로, 항생 물질등의 약품 사용 없이 사육되었습니다.

닭에는 살모넬라(salmonella) 감염 예방 백신을 투여, 정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는 수확후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PHF:post harvest free), 그리고 비유전자 조작(NON-GMO)의 원료를 지정하며 가능한한 국산 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클럽의 달걀은 생산된지 48 시간 이내에 배달됩니다. 달걀을 씻지 않고 배달하는 것은 달걀 표면을 싸고 있는 각피(cuticular)층이 신선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

듀로크와 랜드레스 버크셔를 교배시킨, 튼튼하고 육질 좋고 맛있는 '산겐돼지'가 주가 됩니다. 개방돈사에서 사육된 항균성물질의 잔류가 없는 돼지 고기입니다.

사료로는 수확후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비유전자조작의 사료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료 자급을 향상과 지역 환경과 농지 보전을 위해 사료용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소시지등 30 품목 이상의 가공품도 이 돼지고기를 원료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자주관리 감사제도

생활 클럽 연합회에서는, '안전/건강/환경' 생활 클럽 원칙을 정하여, 원칙에 따른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휴 생산자가 '생활 클럽 원칙'을 비준하여 제도에 참가하고, 조합원과 함께 원칙에 따른 레벨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 품질 관리 기준이나 환경 기준 그리고 그 인정제도와는 다른 특징입니다. 생산자는 농업, 어업, 축산, 가공식품등의 '자주기준'에 따른 정보 공개를 합니다. 조합원과 생산자에 의한 자주 관리 위원회가 기준에 대한 도달 정도를 점검하여, 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준을 개정해 갑니다. 한편 조합원에 의한 자주 감사위원회하에, 조합원은 '다수에 의한 자주 감사' 를 합니다. 이것은 조합원의 생산 현장 감사 활동으로, 생활

클럽의 역사로부터 볼 수 있는 독특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건강·환경」 생활 클럽 원칙

- 제 1 원칙 소비재의 안전성 추구
- 제 2 원칙 먹거리의 자급력을 높인다.
- 제 3 원칙 유해물질의 삭감.
- 제 4 원칙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 제 5 원칙 쓰레기의 삭감과 재사용
- 제 6 원칙 에너지 삭감
- 제 7 원칙 리스크를 줄인다
- 제 8 원칙 정보 공개.
- 제 9 원칙 자주관리와 감사
- 제 10 원칙 다수의 참가

자주기준~ 농업기준항목의 예

- 금지항목 : 농약 공중 살포, 유전자 조작 농산물, 독성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농약 살포의 금지, 먹는 부분에 국가 기준의 10분의 1 이상의 잔류 농약.
- 추장항목 : 3년간의 재배 기록 공개, 맛이 가장 좋은 시기의 농산물, 윤작의 실시, 제초제 불사용.

유전자 조작 반대 운동

유전자 조작 식품이 건강이나 환경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표시도 없이 상품화된 것에 반대하여, 생활 클럽 연합회는 1997년 1월 ‘유전자 조작 작물/식품 등의 원칙적 불사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협력하여 소비재 전부를 점검, 유전자 조작 식품/사료/첨가물 등의 배재와 독자적 표시를 해왔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를 요구하는 청원/진정 운동, 유전자 조작 작물/식품 규제를 요구하는 68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여, 표시제도와 안전성 조사의 강화에 대한 청원의 국회 채택을 실현시켰습니다.

최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 ‘스타링크콘(StarLink Corn)’의 식품 혼입, 종자나 야생종의 유전자 오염등에 의한 유전자 조작 작물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식료의 안전 보장을 훼손시킬 위험성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조작 작물 재배가 확대되어, 일부 다국적 기업이 특허권을 가지고 세계의 먹거리에 대한 지배를 넓히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 연합회는 타생협과 함께 ‘스톱! 유전자 조작 벼 생협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전국실태조사를 하였고 농수산,후생노동부 장관에게 표시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 식품 국제 기준을 책정하는 코덱스(Codex)위원회 바이오테크놀러지 응용 식품 특별 부회에 업저버로 출석, 트레서비리티(traceability)의 확보와 전면 표시의무화, 예방 원칙의 확립, 제 3 자에 의한 안전성 심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도록 600 이상의 단체서명을 가지고 참가국 멤버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또 전면적 표시의 의무화와 둘째, 유전자 조작 벼를 식품이나 사료로 인정하지 말 것을 국회에 요구할 것. 셋째, 학교 급식에 ②식품이나 사료로서 유전자조작 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국회에 요구하는 것, 및 ③학교 급식에 유전자조작 벼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요구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청원·진정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린 시스템과 용기·포장재의 환경 호르몬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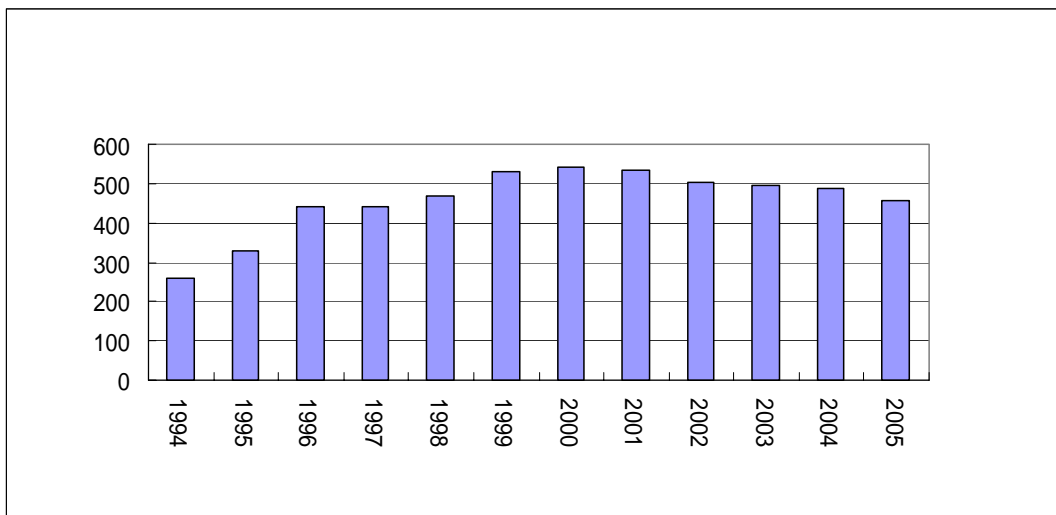
생활 클럽에서는 먹거리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폐기를 종합적으로 배려한 소비재의 공동 구입을 해왔으며 사용후의 용기 및 포장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가정 쓰레기 용적의 60%를 차지하는 용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쓰레기’문제의 해결로 이어진다는 판단하에 생활 클럽에서는 ‘반복해서 사용 가능한 리턴어블(returnable)병’을 선택하였습니다. 병의 재사용은 ‘용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조합원 활동’으로 위치지워, 생산자와 병관련 업자와 협력하에 그것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1994 년에 시작한 우리의 고유한 이 활동을 그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GARBAGE REDUCTION FOR ECOLOGY AND EARTH 'S NECESSITY(지구 생태계를 위한 쓰레기 감량화 시스템)의 약칭입니다.

그린 시스템의 특징

리턴어블병의 규격을 통일시켜 한가지 규격의 병을 복수의 소비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 선별, 세정의 면에서 효율을 높였습니다. 병에는 일본 유리병 협회의 R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생산자(제조사), 생활 클럽(판매자), 에릭스(병 업체)가 협동하여, ‘병 재사용 협의회’를 운영.

【유리병의 재사용 실적】



·2005 년도의 리터너블 병 회수율은 77.5%이었습니다.

·2005 년도는, 병의 재이용에 의해, 조합원 한사람당 7.4kg 의 CO₂배출량을 삭감할 수 있었습니다.

병이외의 용기·포재료에 대해서, 다이옥신의 발생원인이 되는 염화 비닐의 사용하지 않음을 시작하고, 캔등의 환경 호르몬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이옥신 오염 감시 운동을 호소하고, 솔잎의 측정에 의해 일본 전국의 오염 실태를 밝혔습니다.

지역에 뿌리내린 복지 케어

일본에서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1 세기전반에는 30%이상이 65 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활 클럽에서는 이러한 사회 상황을 예측하여 협동조합 조직을 기반으로 사회복지 법인과 NPO 조직등을 형성하여 데이서비스와 특별 양호 양로원을 운영하는 등 시민 참가에 의한 복지 사업을 전개시켜 왔습니다.

2005 년도의 조사에서는, 고령자를 향한 재택 복지 서비스나 시설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룹 관련으로 약 1 만명, 사업소수는 448 군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용자)은 약 3 만명, 방문 서비스등 케어의 총시간수는 143 만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보험제도 시행 이후, 생활 클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사업금액은 연간 83 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상부상조의 관계를 중요시해온 성과이며 이후에도 더욱 확장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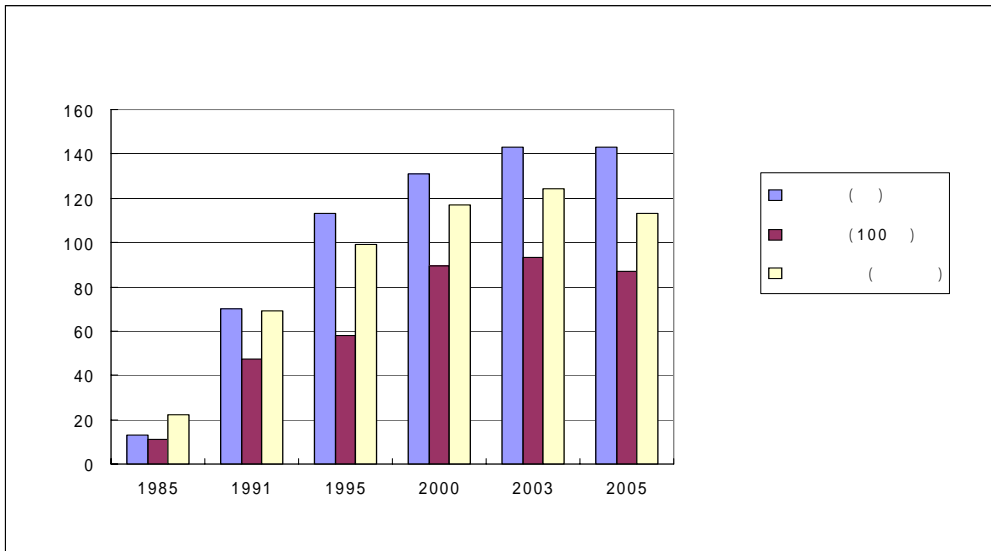
생활클럽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회운동

자기의 생활을 스스로가 관리 운영하고 영속성있는 에콜로지컬한 생활과 생산을 추구해온 생활클럽은 그 경험을 살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운동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방의회의 개혁

그중 하나가 적극적인 정치 참가라는 네트워크 운동입니다. 생활 클럽의 조합원은 합성세계 추방, 비누사용 운동을 하는 중, 자치단체에 대한 청구 운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치 참가와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 하였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조합원들이 지역마다 자립적인 정치단체를 결성하여,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대리인을 보내는 네트워크 운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전국 각지에 ‘생활자 네트워크’ ‘시민네트 워크’가 만들어져 141 명의 대리인을 지방의회로 보냈으며 환경 보전과 복지제도의 충실화등을 테마로 정책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운동의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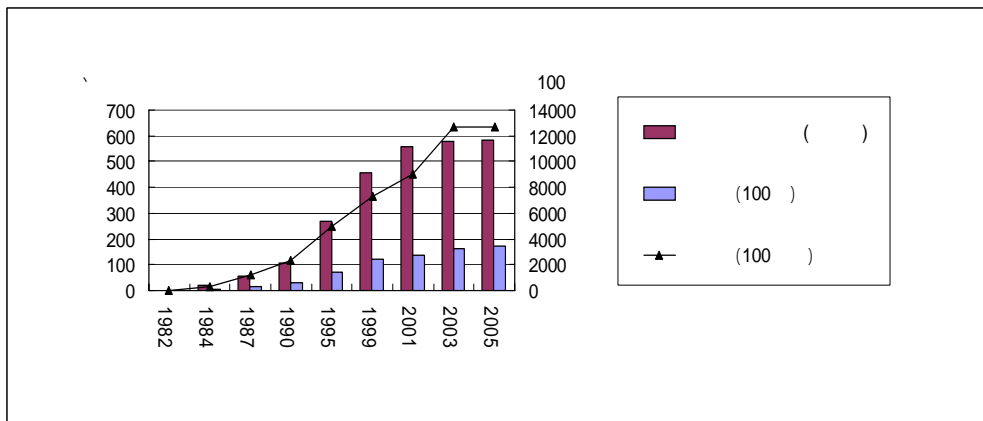


워커즈 컬렉티브 (Worker's Collective)

이익 추구형 기업에 고용되기보다 자신들이 출자하여 운영하고 일하는 협동조합방식의 새로운 노동형태인 워커즈 컬렉티브를 창조하였습니다.

배달 도시락, 빵 등의 식품제조에서 고령자나 장애자 등의 간호, 보육, 리사이클 편집, 소비재 분류, 배달 등 약 582 의 워커즈 컬렉티브에서 17,052 명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워커즈 컬렉티브 확산】



생활 클럽, 네트워크, 그리고 워커즈 컬렉티브가 목표하는 것은 시민 참가에 의한 새로운 지역사회입니다.

평화를 지향, 국제 세계의 NGO 와 교류 연대

생활클럽에서는 세계각국의 NGO 나 협동조합과 교류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1983 년 한국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와 협동조합간제휴, 1999 년에는 한국의 여성민우회, 대만의 주부연맹과 세자매제휴를 맺고, 상호간 방문과 연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는 이 세자매 제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설 여성 위원회를 설치, 계간 '연합 여성위원회 레터' 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00 년에는 이안 맥퍼슨(Ian MacPherson) 박사를 초청하여 '레이드로 보고(Laidlaw Report) 20 주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유엔의 군축회의 '환경과 개발' 회의 지역정상회담등에도 적극적으로 참가. 2001 년에는 '모든 테러에 반대, 군사행동의 즉각적 정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일미 양정부에 제출, '아프간 생명 기금' 의 모금 활동을 하는 등 평화 활동에도 참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필리핀 사람들이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생산하고 있는 무농약 바나나등의 공동 구입으로 민중교역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 추세속에서 지구 환경과 인간을 지키려는 지역의 자립적 활동단체의 존재는 소중한입니다. 이들 그룹이 국경을 넘어 손을 잡고 시민이 자치하는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동이념

생활 클럽 연합회는, 현재, 제4차 연합 사업 중기 계획(2005~ 2009년도)을, 다음 4개의 기본시점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식량의 자급을 향상

- 공정한 생산과 식의 본연의 자세를 목표로 하는 식료주권의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국내자급력을 향상시키는 공동 구입 정책을 진척시킵니다.
- 종자와 농법의 추진,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한 이용 결집 활동과 관련된 소비재 개발, 유전자조작(GM)대책, 사료정책등을 진척시키고, 자주관리·감사 제도를 활용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산 구조에 참획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생산·유통·소비·폐기의 본연의 자세를 목표로 합니다.

2.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만들기

- 지속가능한 순환형 사회와 생태계의 보전을 목표로 하고, 공동 구입 정책 및 사업소 자주관리 활동을 통해서, 화학물질의 삭감, 자원순환, 3R (리듀스, 재이용, 리사이클)을 진척시킵니다.
- 3R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확대 생산자 책임(EPR)의 철저를 요구하고,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용리법)개정의 전국운동에 열을 올립니다.

3. 협동하는 지역사회만들기

- 소자고령사회에 있어서, 육아 세대부터 고령세대까지를 관철하는 공동 구입 사업과 복지·공제사업을 추진합니다.

- 비영리협동 섹터의 일원으로서, 시민자치에 의한 지역사회·남녀공동 참획 사회만들기를 목표로 합니다.

4.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의 중시

- 조합원주권·단협주권에 근거하고, 연합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민주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고, 정보공개와 참가를 적극적으로 진척시키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높입니다.
- 생활 클럽의 컴플라이언스(윤리규범)로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중시합니다.

생활클럽 약력

- 1965 · 생활 클럽' 결성. 우유 공동 구입 시작
- 1968 · 생활 클럽 생협' 창립. '반별 예약 공동 구입' 개시
- 1972 · 생활 클럽 독자 규격의 소비재 제 1 호 된장 개발
- 1978 · 정치 단체 그룹 /생활자 (현: 생활자 네트워크)를 도쿄에 결성
- 1981 · 협동조합 비누 운동 연락회' 발족
- 1982 · 제 2 회 유엔 군축 특별총회에 대표 다섯명 파견
 - 워커즈 컬렉티브 '닌진' 설립
- 1983 · 한국 신용 협동 조합 중앙회와 '협동조합간 제휴의 추진에 관한 각서'를 교환
- 1986 · 생활 클럽 공제 제도 (에코로공제)발족
- 1989 · 제 2 의 노벨상 '라이트라이브리후드 어워드(RLA)' 명예상 수상
- 1990 · 생활클럽 사업 연합 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 RLA 수상 1 주년 기념 심포지엄 '아시아의 민중과 함께 만드는 21 세기' 개최
- 1993 · 일본의 식료 자급을 향상을 목표로 '먹거리 전문 생협'방침을 제기
 - 병 재사용의 그린 시스템 개시
- 1997 · 유전자 조작 작물, 식품불사용 원칙을 확인
 - 자주 관리 감사제도를 개시
- 1999 · 다이옥신 오염을 없애기 위한 감시 운동을 개시
 - 초경량 우유병 (에코라이후비와코 상수상)을 개발
 - 용기 포장재의 환경 호르몬대책이 진행됨
 - 한국 여성 민우회, 대만의 주부 연맹과 3 자 자매 제휴를 조인
- 2000 · 유전자 조작 식품의 국제 기준을 책정하는 코덱스 위원회 바이오테크놀러지 응용식품 특별 부회(BT 부회)에 대해 신문에 전면 의견 광고를 게재하는 등 <스톱!! GMO 선언>통일 캠페인 활동을 실시
 - '유전자 조작 작물·식품의 규제를 요구하는 국회청원 서명' 제 150 국회가 채택
 - 이안 맥퍼슨 박사를 초청 네이드로 보고 20 주년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스톱! 유전자 조작 벼 생협 네트워크' 결성

- 2001
 - ICA(국제 협동 조합 동맹) 총회에 대표를 파견
 -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 전국 실태 조사, 농수 후생 노동 장관에게 표시 제도 개선을 요구.
 - ‘모든 테리에 반대, 군사 행동 즉각적 정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일미 정부에 제출.
 - ‘아프간 생명 기금’ 모금 활동
 - 마리아 미스 박사를 초청 GMO와 BSE의 해결을 향해 스톱! GMO 집회
 - COOP 종합 독자 인수 인가
- 2002
 - BT(바이오테크놀로지 응용 식품)특별부회참가국 멤버앞에 요청서 배포
 - 「스톱! 유전자 조작 벼 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가 EU 조사단을 파견
 - 아시아 BMW 기술교류회 (한국)에 참가
 - 「ICA 아시아 태평양지역 여성 포럼」에 참가
 - 「식품안전법 기본법안 골자안에 관한 의견」을 내각 관방 식품안전위원회에 제출
- 2003
 - 인터넷 주문을 전체화
 - 「제 4 차 중기 계획 책정 프로젝트」를 설치
 - 「용기포장 리사이클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설립
- 2004
 - 유전자 조작 밀, 캐나다·미국 반대 서명 제출 행동에 참가
 - 가나가와 5 지역단協이 생활 클럽 연합회에 가입
 - 「스톱! GMO 연락 협의회」설치
 - 「생활 클럽 GM 식품문제 대책협의회」정식발족
 - 「ICA 아시아 협동조합연구 회의」참가
- 2005
 - 스마트라 앞바다 지진·해일에 의한 피해자 구원 모금 활동 실시
 - 「교토 의정서발효에 즈음하여 생활 클럽 어필」발표
 - 생활 클럽 후쿠시마 가입
 - 제 4 차 연합 사업 중기 계획(2005~ 09 년도)책정
 - 신 딜리버리 센터 건설 용지를, 사이타마현 한노우시에 취득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의견을 표명
 - RLA(Right Livelihood Award) 25 주년 기념 대회 참가